

국내 작업치료 홍보를 위한 기초조사

장종식*, 라나영*, 원정연*, 이나라*, 이경민* 김지현*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인지도 및 관심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 작업치료 활성화
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대학생과 일반인 총 308명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설문조사 하
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t검정, 분산분석, 사후검정,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의 인식도에 관하여 연령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1$), 작업치료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작업치료와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33.5%),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37.1%). 작업치료에 관하여 알아보고 싶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53%),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홍보(63.5%)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에 관한 인지도는 부족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장애를 입게 된다면 작업치료를 받고 싶다는
응답이 높고 작업치료를 알고 싶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높은 관심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치료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나 지인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관심도, 인지도, 작업치료, 홍보

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1989년부터 실시된 전 국민 의료보험 수혜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Park, Hyun, Han, Park, & Park, 2002). 현재 보건의료 인력 가운데 의료기사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
기공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Kim, 2014).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
의 한 전문 분야이다(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2008)

최초의 한국 작업치료사는 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
허를 취득했던 Esther Park으로 60년대 한국으로 들어
와 작업치료 양성 교육을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 연세
대학교에서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정규과정교육이 시
작되었다(Lee, Lee, Lee, & Yoo, 2004). 최초의 작업치

료 정규과정 개설 이후 22년간 연세대학에서 작업치료를 단독 배출하였으나 1999년부터 작업치료 양성교육기관이 증가하여 2014년 현재 4년제 31개교, 3년제 전문대학 31개교로 2원화되어 작업치료를 연간 1,500여명 배출하는 성장을 이루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4). 한국의 작업치료사 수는 2014년 현재 10,071명이며(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4), 2020년에는 18,281명으로 인구 10만 명에 작업치료사의 수는 약 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Jeong, & Cha, 2009).

현재 작업치료사들의 근무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재활병원, 종합병원, 노인병원, 아동병원, 복지관, 사설기관, 학교, 의원, 보건소 요양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방면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2011). 작업치료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등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매우 낮아 작업치료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20%인 것에 반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60%로 나타나서 물리치료의 경우 모른다는 10%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낮은 인식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Lee, 2008).

외국의 직업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사는 최고의 직업 100선에서 14위에 위치해 있고 최고의 건강관리 직업 9위이며 작업치료 실업율은 전체에서 2.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유망한 직업이다(U.S News, 2014). 또한 10년 뒤까지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 직종은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 7대 유망 직업군으로 작업치료를 성장직업 20선에 선정하였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8).

국내 작업치료는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작업치료 직종과 관련하여 비슷한 교육 및 자격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제도 등에서는 빈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Jeong, & Kim, 2013). 작업치료 분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넓히는 방안으로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Lee, & Lee, 2008). 대한 작업치료 학회지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장애인식에 관한 연구는 적게 진행되었으나 홍보를 위한 작업치료 인지도 및 관심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진다(Yoo, Lee, Lee, Park, & Yoo, 2011).

작업치료 홍보를 위하여 전국작업치료교수협의회에

서 주관하여 매년 4월 넷째 주는 작업치료인 주간(OT pride week)으로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작업치료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에도 '작업치료'라는 표제어를 정식으로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작업치료의 홍보를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작업치료의 인식도와 관심도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하여 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주제탐구'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이 작업치료의 인식도와 관심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홍보방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작업치료학과를 제외한 타과에서 86부를 회수하였고, 2차적으로 지인에게 150여부, 교도소에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여 20여부, 마지막으로 영등포와 일산에 소재한 지하철역에서 각 30여부씩의 설문을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의 인식도와 관심도 조사를 통해 작업치료 홍보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문항으로 인식도 3문항, 관심도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업치료 인식도 조사를 위해 '전혀 모른다' 1점에서 '매우 잘 안다' 5점으로 Likert-type 척도를 이용하였고, 관심도에 관한 문항은 각 문항에 맞게 5가지의 선택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설문지를 중심으로 1차례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N(%)
Gender	Male	184(59.5)
	Female	124(40.5)
Age (years)	10~19	81(26.3)
	20~29	152(49.4)
	30~39	28(9.1)
	40~49	25(8.1)
	50≤	22(7.1)
Jobs	students	197(64)
	employee	42(13.6)
	salesman	14(4.5)
	medical personnel	9(2.9)
	other	46(14.9)
Do you want to receive occupational therapy when you get injured?	Yes	283(91.6)
	No	25(8.1)

3. 분석방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식도 및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작업치료 인식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후 사후검정(scheffe)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18.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자 184명(59.5%), 여자 124명(40.5%), 총 308명이었고, 연령은 10대 81명(26.3%), 20대 152명(49.4%), 30대 28명(9.1%), 40대 25명(8.1%), 50대 이상 22명(7.1%)이었다. 직업은 학생 197명(64%), 회사원 42명(13.6%), 판매직 14명(4.5%), 의료인 9명(2.9%), 기타 46명(14.9%)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장애를 입는다면 작업치료를 받겠냐는 질문에 283명(91.6%)이 ‘예’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III. 연구 결과

2. 작업치료 인식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작업치료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

Table 2. Awareness rate of occupational therapy by gender and age

		Subjects(N)	Awareness rate of occupational therapy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184	2.12±1.20	.306	.76	
	Female	124	2.08±1.01			
Age (years)	10~19 ^a	81	1.86±1.17	4.44 ^{**}	.00	a=b=c=d=e
	20~29 ^b	152	2.36±1.06			
	30~39 ^c	28	1.96±1.20			
	40~49 ^d	25	1.60±0.87			
	50≤ ^e	22	2.09±1.23			
Jobs	Students ^a	197	2.20±1.11	3.59 ^{**}	.00	a,b,c<e
	Employee ^b	42	1.98±1.07			
	Salesman ^c	14	1.79±1.05			
	Medical personnel ^d	9	3.11±1.69			
	Other ^e	46	1.78±1.03			

p<.05, p<.01

Table 3. Who do you think are subjects for occupational therapy

Geriatric Population	Adults	Pediatric Population	People with Disabilities	Everybody
24(7.8)	18(5.8)	13(4.2)	32(10.4)	221(71.8)

Table 4. Find the path of Occupational Therapy

Have ever found	Connection with occupational therapy	Received an occupational therapy	Internet or TV	Other
13(6.6)	66(33.5)	23(11.7)	73(37.1)	22(11.2)

Table 5. Do you consider to know more about occupational therapy?

Very interested	Basic Concepts	Maybe	Somewhat not interested	Absolutely not interested
19(8.0)	107(45.0)	52(21.8)	42(17.6)	18(7.6)

Table 6. What do you think is the solution to actively develop occupational therapy

Publicity	Help PWD*	Active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Others
106(63.5)	6(3.6)	15(9.0)	9(5.4)	31(18.6)

*People with Disabilities

여 성별, 나이, 직업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성별에 따라서 작업치료의 인식도의 차이는 없으나,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작업치료에 관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와 10대에서 낮은 인식으로 나타나며($p < .01$), 직업별로는 의료인에서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p < .01$).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작업치료에 관하여 매우 낮은 인식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Table 2).

3. 작업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상

작업치료를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노인 24명(7.8%), 성인 18명(5.8%), 아동 13명(4.2%), 장애인 32명(10.4%)인 것에 반해 모두가 대상자 일 것 같다는 응답은 221명(71.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찾

아본 적이 있다 13명(6.6%), 주위에 작업치료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 66명(33.5%), 작업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다 23명(11.7%),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봤다 73명(37.1%), 기타 22명(11.2%)로 나타나 지인이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작업치료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졌다(Table 4).

5. 작업치료 관심도

작업치료를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흥미로워 알아보고 싶다 19명(8.0%), 개념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107명(45%), 보통이다 52명(21.8%), 별 생각이 없다 42명(17.6)%, 전혀 관심이 없다 18명(7.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열린 질문으로 받아 범주화 시킨 결과 홍보 106명(63.5%), 장애인 돕기 6명(3.6%), 활성화 15명(9.0%), 지원 9명(5.4%), 기타 31명(18.6%)로 나타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6).

IV.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하여 작업치료 인식도와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WHO에서는 2001년 ICF(Inter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를 채택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개인의 활동과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점차 작업치료도 과거 의료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생활을 아우르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작업치료는 물리치료와 함께 1979년 연세대 보건학과의 설립으로 정규교육과정이 시작되어 1991년 작업치료와 물리치료가 분리되어 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이후 1998년 물리치료사가 13,000여명인데 반하여 작업치료사가 372명으로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의 35배의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왔다(Lee, 1998). 이런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작업치료의 낮은 인지도로 이어져 물리치료와 비교하여 연령별 2~3배 정도 낮게 보고된다(Lee, & Lee, 2008). 2014년 현재 물리치료학과의 경우 4년제 47개교, 3년제 38개교로 한해 377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작업치료학과의 경우 4년제 31개교, 3년제 31개교로 한해 1532명의 작업치료사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4;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14). 작업치료학과의 경우 신생학과의 영향으로 졸업자의 수는 차이가 있으나 개설된 학과의 수는 예전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작업치료의 인식도에 관한 설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나이와 직업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10대와 40에서 낮은 응답을 보였다. 10대에서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것은 아직 작업치료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대에서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보인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작업치료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Lee, & Lee, 2008; Ryu, 2003), 또는 대학교 진학 후 학교 내 작업치료 학과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40대 이상에서 낮은 작업치료 인식도를 보이는 것은 작업치료가 비교적 최근인

2000년 이후 활성화가 이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지도에 차이가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p < .01$), 사후 검정에서 유의한 값은 보이지 않았고 3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작업치료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학생의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 연구의 일반화에 어려운 점으로 사료된다. 직업에 따라서 작업치료의 인식도에 관한 설문을 분석해보면 의료업에 종사중인 사람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22%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학생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3%, 회사원이나 판매직에서도 45~55%에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작업치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작업치료를 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 모두 다 대상일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71.8%). 일반인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는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설문지 문항구성에 있어 '모두 다 아닐 것 같다'라는 문항이 삽입되지 못하여 '모두다'라는 항목이 높은 응답을 받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작업치료를 알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작업치료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언론매체(인터넷, TV)를 통하여'(37.1%), '주위에 작업치료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33.5%)로 나타나 최근 TV나 인터넷에 작업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나 지인을 통하여 작업치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추후 작업치료의 홍보 시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한 작업치료의 홍보 효과가 다른 홍보의 효과들 보다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인터넷 매체나 지인을 통한 소개비율이 높은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며(Park et al., 2011), 미디어 등의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도 비슷한 결과로 보여 진다(Jeong, Nho, & Byeon, 2013; Shen, & Huggins, 2013).

두 번째로 작업치료의 관심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작업치료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매우 흥미롭다'(8.0%), '개념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45%)등의 긍정적 문항이 '별 생각이 없다'(17.6%),

‘전혀 관심이 없다’(7.6%)등의 부정적 응답보다 높게 보여진 것은 작업치료가 의료분야에서의 역할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작업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반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응답을 받은 후 범주화 시켜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홍보’(63.5%)로 나타나 작업치료의 홍보가 활성화에 도움을 가장 많이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인터넷 등은 미디어 진화 단계별 속성에 ‘미디어 2.0’ 단계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별 효과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기존의 결과를 살펴볼 때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Broom, 2002; Bruning, & Ledingham, 2000; Hwang, & Choi, 2013).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반인들의 작업치료의 인식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작업치료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홍보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언론매체나 지인들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문항 구성이 비교적 단조로워 인과관계나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있어 미흡하고, 충청지역과 수도권외 다양한 지역의 설문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무작의 할당이 되지 못하고,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얻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일 수는 있으나, 작업치료의 인식도와 인지도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사료된다. 추후 작업치료의 인식도 조사에는 신뢰성이 검증된 문항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작업치료의 홍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홍보를 통한 작업치료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수도권에 거주중인 308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의 인식도와 관심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작업치료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의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낮고 연령과 직업에 따른 인식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작업치료

를 알게 되는 계기는 언론매체나 지인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업치료에 관한 관심도가 높으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매체나 지인을 통한 홍보가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작업치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더욱 많은 문항을 통해 인지도와 관심도에 관한 인과관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

- Broom, S. (2002). Relationship building as a retention strategy: Linking relationship attitudes and satisfaction evaluations to behavioral outcomes. *Public Relations Review*, 28, 39-48.
- Bruning, S. & Ledingham, J. (2002). Perceptions of relationships and evaluations of satisfaction: An exploration of interac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6, 85-95.
- Hwang, K., Choi, I. D. (2013). A research of policy promotion through the mass media relations problems solu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1), 289-322.
- Jeong, B. L., Kim, J. H. (2013). Comparative study on systems of occupational therapy in both OECD and WFOT member countri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1(3), 1-14.
- Jeong, M. Y., Cha, Y. J. (2009).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supply-demand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7(4), 113-127.
- Jeong, S. E., Nho, H. Y., Byeon, S. H. (2013).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effect of presumed influence of media coverage on behavioral intention: A critical approach to the third-person effect hypothesis and the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hypothesi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8(4), 198-239.
- Kim, H. J. (2014). Medical-related Laws for

- Occupational Therapists. Seoul: medicine education.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4). Status of Number of Occupational Therapists. Retrieved October 30, 2014, from <http://www.kaot.org>.
-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14).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Retrieved October 30, 2014, from <http://www.kpta.co.kr/newkpta>.
- Lee, H. S. (2011). A survey of the core job of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heir different job tasks depending on the therapist's experience in years and different treatment area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9(1), 1-14.
- Lee, J. S., Lee, T. Y., Lee, J. Y., Yoo, E. Y. (2004). Occupational therapy. Seoul: Topmediopia.
- Lee, J. W., Lee, J. H. (2008). The difference of public awareness between occupational & physical therapy and the effect of publicity activities.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ged and Dementia*, 2(2), 25-33.
- Lee, M. J. (1998). The present condition of occupational in Korea and its alternative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6(1), 93-105.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8). Korean job forecasting studies. Seou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 (NBCOT). (2008).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NBCOT 2008 Practice Analysis*. Gaithersburg: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
-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2014). *A national examination for occupational therapist pass present*. Seoul: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 Park, H. A., Hyun, S. K., Han, K. J., Park, J. H., Park, S. A. (2002). Domestic nursing workforce supply and demand analysis and estimation research. *The Korean Nurse*, 41(1), 51-68.
- Park, H. Y., Cho, D. Y., Lee, J. H., Kim, H. S. Kim, J. S., Park, S. H. (2011).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tudents in Korea I: General status and reasons for major sele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4), 79-94.
- Ryu, H. J. (2003).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hange for social study in the information age*. 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yongji, Seoul.
- Shen, L., & Huggins, C. (2013). Testing the model of influence of presumed influence in a boundary condition: The impact of question orde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9, 470-491.
- U.S News. (2014). *Best Health Care Jobs Occupational Therapist*. Retrieved October 30, 2014, from <http://money.usnews.com/c4careers/best-jobs/occupational-therapist>.
- Yoo, E. Y., Lee, J. S., Lee, J. Y., Park, H. Y., Yoo, J. E. (2011). Research literature in Korean occupational therapy by using 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1), 29-41

Abstract

Basic Investigation for Publicity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Jang, Jong-Sik*, M.P.H., O.T., Ra, Na-Young*, O.T., Lee, Na-Ra*, Won, Jeong-yeon*, O.T.,
Lee, Kyoung-Min*, M.P.H., O.T., Kim, Ji-Hyen*, Msc., O.T.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Far East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interest rate of occupational therapy in Korea, and to establish basic data for further development of occupational therapy through the results.

Methods : This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October 1th and December 31st 2013 and 308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university student and public. The questionnaires of 308 respondents were analyzed through Cosstab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study and t-test, ANOVA analysis using SPSS ver. 18.0.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wareness rate of occupational therapy by age and occupation ($p < .01$). People who were knowledgeable about occupational therapy had a friend or relative related to occupational therapy(33.5%), or were informed through media(37.1%). Positive responses regarding whether responders wanted to find more about occupational therapy were high(53%), and publicity(63.5%) turned out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advancement.

Conclusion : Although there is a lack of public awareness on occupational therapy, high percentage of responders showed positive responses in receiving occupational therapy when they get an injury in the future, and furthermore, learn more about occupational therapy. Based on this result, it is clear that high percentage of people were showing interest to occupational therapy. It could be conjectured that active publicity through internet or media may be effective.

Key Words : Awareness Rate, Interest Rate, Occupational Therapy, Publicity